

유일농원을 찾아서

취재: 김 중 호

오류동 역에서 전철을 내려 쉽게 유일농원을 찾을 수 있었다. 깨끗한 2층 양옥집. 오류동 1번지. 초인종을 누르자 신정일 부장이 나와 반갑게 맞아준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된 농장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규상(李揆相)사장이 들어선다. 조용하고 차분한 學者風의 이규상씨는 어려웠던 옛날을 더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양계업에 몸을 담게된 동기부터 얘기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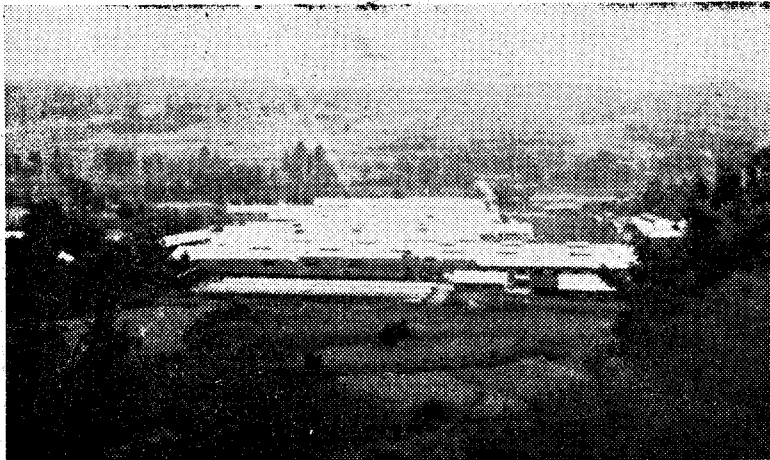
직하는 공무원이었던 이규상씨는 부업과 취미 생활을 겸하여 상도동 자택의 한구석에 비를 가릴정도의 허술한 계사를 짓고 100수 정도의 산란계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유일농원이 있게된 첫걸음이라고 한다. 틈틈이 양계서적을 읽으며 전문지식을 익혔고 점차 규모가 확대됨으로서 1959년에 현 위치인 오류동(800명)으로 이전했으며 그때만해도 경영 및 관리는 동생인 이규당씨(현재 육계농장장)가 맡았다고 한다.

산란계 100수로 양계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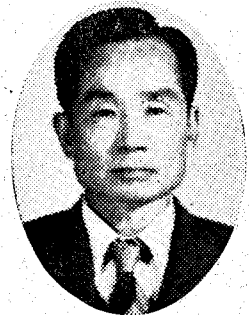
6.25사변이 끝난 1953년, 당시 채신부에 재

시장에서 생선찌꺼기 싸들고 귀가

그때는 배합사료는 없었고 주로 밀기울을



<유일 농원 의정부 종계장 전경>



이 규 상 사장

사료로 이용했으므로 직장에서 퇴근한 때는 남대문 생선시장에 들러 생선찌꺼기를 모아 싸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과중에

하나였다고 이규상씨는 그때를 회고한다. 부업의 규모를 벗어나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64년도에 공무원을 사직하고 65년부

터는 부화기 1대로서 산란계부화를 시작하브로서 본격적으로 부화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67년에는 영등포 신정동에 브로일러 농장을 세웠고 71년에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5,300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종계장을 세웠다고 한다.

육추때는 햇풀을 베어다가 청에사료로 이용하거나 생선깻겨기를 삶아 급여하기도 하고 여름에 아카시아 잎을 말려서 겨울에 녹사료로 이용했으며 겨울에는 왕겨와 톱밥을 사용한 시설이었지만 1년 내내 산란율 70~80%를 유지했다고 한다. 어려웠던 시기의 그러한 사양방식이 요즘 많이 논의되는 사료자원의 효율적이용이 아니겠냐고 하며 이규상씨는 웃는다.

..... 신용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무난히 넘겨

수많은 파동과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타개했느냐는 질문에 이규상씨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불경기때의 자금난이었다고 하면서 불경기가 닥치면 닭판매가 급속히 감소하므로 수입은 없고 생산은 유지하기 위해 사료를 계속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73년 파동에는 모두들 육계생산을 포기하는 상태였으나 전부터 신용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던 윤도진씨(당시 사료공장경영)를 비롯한 여러사람들의 희생적인 자금지원과 외상거래로서 시련을 극복했다고 하며 평소에 착실히 쌓아가는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때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 1만수의 국산계만 종계로

현재 부화장 규모는 마스터 피스 5대, 대형 메터 혼 2대(1대 24,000개 입란)로서 총 입란 능력은 1만개 라고 한다.

또한 현재 종계장에는 외국계는 없고 한협 630만 1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한다. 외국계는 경험부족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국산계에만 전념할 계획이며 올해는 호황일지라도 무모한 확대는 삼가하여 20% 정도의 신장율을 지켜 1,200수로 늘일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현재 영등포 신정동에 위치한 부로일러 농장은 6만수 정도의 규모로서 7~10단계 바타리로 시설이 되어있다 한다

..... 신용만이 가장 확실한 사업발전의 기반

사업이념과 경영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규상씨는 신용을 토대로 하는 사업만이 가장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따라서 유일농원은 ○ 절대신용 ○ 절대봉사 ○ 꾸준한 연구 ○ 강건한 병아리라는 4가지를 경영지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신정일 부장은 기업이란 살아있는 동물이며 계속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현재 잘못된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시정하고 잘때도 계속 노력하는 기본 자세를 지키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생하면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타결책이 반드시 발견될 때까지 연구 노력하는 것만이 발전의 튼튼한 기틀임을 강조한다.

..... 철저한 소득이 수익 증대의 비결

예전에는 부로일러 농장에서 3,4월에 폐사율이 가장 높아 1%에 까지 이르는 문제에 부딪혀 원인을 분석해 본결과, ① 오염계사 ② 백신문제 ③ 초생추 생득비강접종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① 종계장을 격리시키고 ② 전계사내에 1일 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③ 접종 방식을 바꾼결과 좋은 효과를 얻었으며 그로 인해 소요되는 약품구입 비용보다 수익이 훨씬 증가함을 알았다고 한다.

..... 무슨 병아리가 한마리도 안 죽느냐?

현재까지 종계장에 호흡기병이 없었던 것은 철저한 방역이 결과라고 믿고 있으며 아울러 종계및 부화관리에서의 방역에 완벽을 기하기위해 선란을 거친 종란에 분무 소독을 실시하여 입란하며 혹시 약추가 발생하면 자체 소비를 하고 강한 병아리만 수요자에게 출하하는 방식, 즉 「종계→종란→병아리」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철저한 선발을 하

므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가끔 수요자들로부터 “무슨 병아리가 한마리도 죽지 않느냐?”하는 항의 아닌 항의(?)를 들을때 회열에 가까운 보람을 느끼며 그 때마다 「100%의 완벽」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한다고 한다.

수요자의 번영이 나의번영

「수요자의 번영이 나의번영」이라는 공동의 식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 그것이야말로 「너」와 「내」가 같이 크게 발전할 수있는 최대공약수라 믿어 유일농원에서는 수요자들에게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에도 인간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했다.

통계는 정확해야

이규상씨는 모든 사업에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화장의 통계 보고가 좀더 정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또한 일반양계업자들이 대체로 타성에 젖어 경력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양계산업의 승패는 생산성향상에 달려 있으므로 사소한 것같은 사료손실, 파란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한다.

신정일부장은 생산조절문제에 관해 물론 생산자 자신의 적절한 조절도 중요하겠지만 보

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적극적인 양계산물소비 증대방안이 필요하며 「따라서 보다 큰 안목으로서 타산업 대 양계산업이라는 견지에서 양계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할 단계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료, 제약업계에 비해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생산자이며 특히 약덕사료공장의 횡포에 대해 분노를 터트린다. 사료의 질이 급격히 저하했을 때 그 악효과는 즉각적인 것이며 그로인한 사육자의 피해는 막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육류증산계획을 세우면서 약품원료수입에 대한 달러배정을 줄이는 오류나 옥수수 도입이 한두달치분씩 수입되므로서 간혹 선적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업계가 한탕 소란을 격는 문제등 당국이 정책적인 안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축산발전에 일익을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묻자, 이규상씨는 현재는 육계부화만을 취급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제도 부화시킬 예정이며 수요자에게 장전한 병아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양계를 포함한 축산이 천지이라는 사명감에서 종계 및 부화사업을 확대시키고 나아가서는 축산을 발전시키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이야기 한다.



三正農苑 (70일雛)

清淨環境에서 完璧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安全하게 輸送.

有名品種—하이섹스, 바브콕, 세이바
 育成方法—初生雛時 삿갓평사 中雛時 케이지 사육
 防疫計劃—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發育度—品種別표준체중보증
 輸送—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중 (70일추)

三正農苑

代表 李 晤 炯

연락처: 양지가축약국 56-1938

130-22 京畿道廣州郡五浦面陽筏1里261성 약 원 55-3177